



# 빙산황

2021 WINTER vol.22

### Hot 人

'봉사의 의미를 정의하다.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김미경 대장의 봉사이야기

### 안전을 부탁해

'훈련이 곧 자신감이다'  
전남동부특수구조대의 구조훈련 이야기

### 환경을 부탁해

깨끗한 바다는 그린뉴딜의 시작

HAPPY NEW YEAR



한국해양구조협회

# 이마트 마일리지 활용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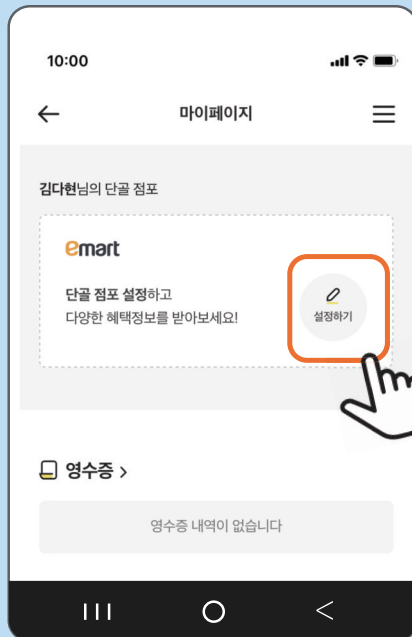
쇼핑한 금액의 0.5%를 이마트에서 적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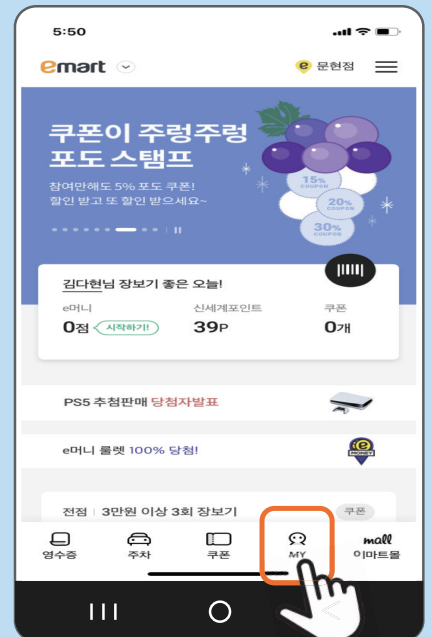
적립된 기금은 바다 안전을 지키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처우개선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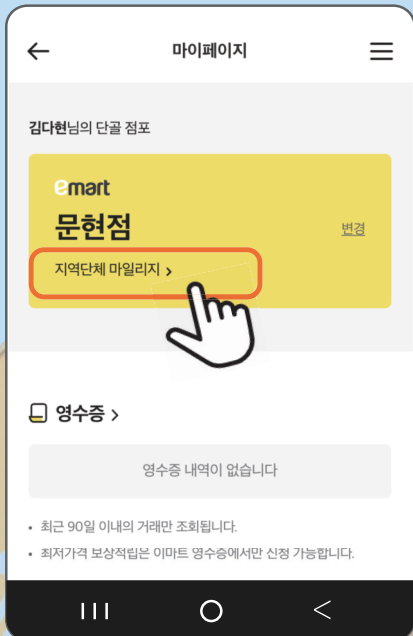
**1** 이마트 어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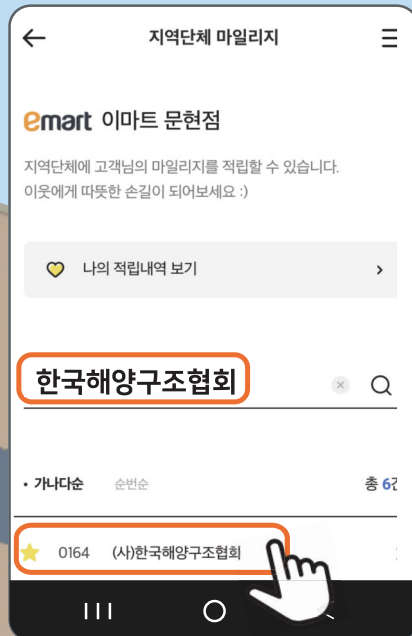
**2** 회원가입 후 단골점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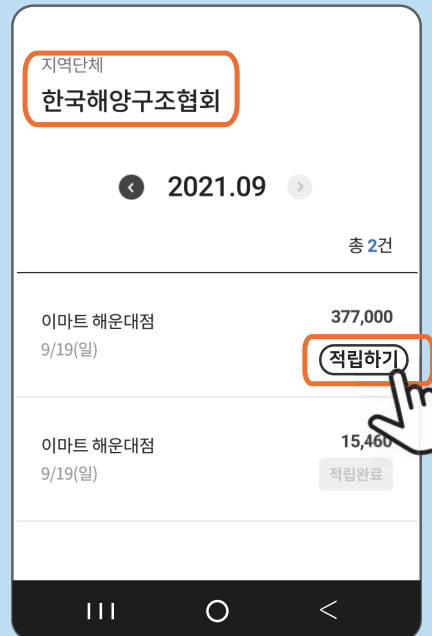
**3** 앱 화면 하단 my 클릭



**4** 지역단체마일리지 클릭



**5** 한국해양구조협회 검색  
★ 즐겨찾기 설정 후 클릭하기



**6** 적립하기 클릭  
(개별포인트 적립과 별도로 기부됩니다)

어플이 없는 경우 종이영수증을 가지고 '고객만족센터' 방문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SА KOREA MAGAZINE

2021 12  
제22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1년 12월 28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해관 최수남(海觀 崔守南)선생의 작품으로 '님실대는 파도를 역동적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바다를 통해 치유 받는 마음'을 담았다.

## CONTENTS

	<b>Special Theme</b>	
04	신년사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김성태
06	취임사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b>MARSА News</b>	
09	본부 뉴스	1) 협회-해경청 지휘부 간담회
10		2) 2021 바다의인상
11		3) 어선 전복사고 민간구조활동 유공자 격려식 개최
12		4) 2021년 지부 실무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13	<b>지부·지역대 뉴스</b>	1) 강원북부지부, 속초시에 6백만원 상당의 무인 방역기 및 약품 기탁
14		2) 경남동부특수구조대, 제1·2대 대장 이·취임식
15		3) 통영구조대, 『합포 조민규 봉사상』 단체상 수상
16		4)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
17		5) 경남동부지부, 「제3회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 참가
18		6) 전남동부지부, 정박선박 화재사고 민·관합동 훈련
19		7)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 『2021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
20		8) 부산지부·경남서부지부 거제구조대, 거제 능포항서 합동 '수중 드론' 바다 속 청소
21		9) 거창구조대, 하천 수중정화활동 실시
22		10) 경기충남북부지부, 화재 관련 사고로 오염된 바다 정화작업 실시
23		11) 부산지부,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훈련 참가
24		12) 통영구조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봉사 활동
24		13) 경북특수구조대, 제천 수상의용소방대와 업무협약 체결
25		14) 전국 구조·구난소식
	<b>MARSА Story</b>	
26	Hot 人	'봉사의 의미를 정의하다. _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김미경 대장의 봉사이야기
30	안전을 부탁海	'훈련이 곧 자신감이다' _ 전남동부특수구조대의 구조훈련 이야기
33	환경을 부탁海	깨끗한 바다는 그린뉴딜의 시작
	<b>MARSА Info</b>	
36	국내뉴스	1) 해양경찰청,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도입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
37		2)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38		3) 해수부, 남해안 멀치권현망·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39		4) 폐어구, 부표 해양투기 막는 법제도 기반 마련됐다
	<b>MARSА Notice</b>	
40	협회교육안내	1)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41		2) 2022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42		3) 2022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43		4) 2022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44	협회후원안내	

## 신년사

# 바다가족들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김 성 태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맹수로서 최고의 두려움인 동시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입니다. 우리 모두 호랑이의 기상처럼 강인한 의지로 역병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처럼 매서운 풍파를 건디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난국難局 속에서도 구조·구난 및 해양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금모금 바자회, 연탄·김장봉사, 생필품 지원, 청소년 멘토 등 활동의 범위는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확대하여 봉사단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이뤄내신 성과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회원들의 노고가 퇴색되지 않도록 백난지중百難之中 속에서도 내실을 다져 소통과 화합을 기반한 조직강화, 교육의 전문성 확대,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여 그동안 심은 씨앗의 뿌리가 깊숙이 내릴 수 있도록 토양과 자양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지부 실무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부의 어려운 현안 및 고민을 함께 논의하였고, 협회장 및 지역대장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통감하며, 소통이 유일한 돌파구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의 지부 및 지역대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19년부터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협회로 조직이 일원 화함에 따라 통합에 따른 조직 결속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따랐던 것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바다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봉사단체입니다. 그렇기에 바다 봉사자들이 이 원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과제입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1월 4일, 독도 북동방 91해리 부근에서 전복된 선박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민간해양구조대 원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 에서 미흡하지만, 소속감 고취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 특색에 따라, 차별을 두어 함 께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민간경상보조사업 총사업비 12억4천4백만원을 지원받아 피복지급과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추 가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우리협회가 3년 연속 선정되어, 과거를 교훈 삼아 내실을 더욱 다지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해양 수색구조에 드론(무인항공기)사용 및 서프구조대의 구조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 분야에서 좀 더 세분화된 기술이 요구되어, 기존의 기본교육에서 구조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양 질의 교육으로 찾아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상구조법 개정에 따라 수난구조 참여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범위가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구 조활동 중 개인장비(잠수장비, 선박 등)의 파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절차가 없어 많은 봉사자들이 법의 사각지 대에서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신임 청장님의 취임에 맞춰 해양경찰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바다봉사자 여러분!**

우리 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바다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모습으 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비록 암초에 부딪혀 위기의 순간들을 맞아야 했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 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에 쉽지 않은 길이지만,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기세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 하고 미래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인년(壬寅年) 새 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년 원단  
한국해양구조협회장 김 성 태

## 취임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국의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



해양경찰청장 정 봉 훈

반갑습니다. 취임 인사에 앞서,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다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 국민 모두의 삶이 조속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첫 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신 김홍희 전임 청장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사랑하는 해양경찰 동료 여러분!

바다는 저에게 유년시절부터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그 바다에서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기나긴 여정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해양경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청장이라는 과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30여 년을 함께 한 해양경찰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동료 여러분!

동북아 해역은 본격적인 해양패권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해양경찰기관의 권한과 전력 강화를 필두로 공세적인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해양영토를 둘러싼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미래해양

시대를 선도하고 국익과 국민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의료나 치안이 취약한 바다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닥터 경비정」 운영 등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 속에서 바다를 이해하면서 해양경찰을 알릴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과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해양주권수호’와 ‘국민안전’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해양경찰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첫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현장 친화적 대응)

국민안전을 위한 ‘예방’과 ‘사고대응임무’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인력과 구조장비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함정, 파출소, VTS 등 일선기관에서 관할구역의 「취약지」를 상시 관리하고, 「취약요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現場 親和的 종합해양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 둘째,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과 전문성 강화)

우리의 업무에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질 때 해양경찰의 미래발전 방향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역량 강화 차원을 넘어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방청 차원에서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은 필요한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지방청은 책임에 걸맞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셋째,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업무환경을 주도해야 합니다. (미래발전 기틀마련)

해양경찰의 업무분야는 첨단 기술과 장비의 활용을 통해 업무 영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위성 활용, 무인기 도입, 빅데이터 수집, AI 분석 등 미래역량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첨단기술의 도입을 더 확대하고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 등 미래 사회에 적합한 조직체

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급변하는 해양 환경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업무체계 전환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연구 등 소프트웨어의 측면도 함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조직 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동료 친화적 소통)

최근에는 MZ세대가 조직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세대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융화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계급, 성별 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동료 친화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도,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청장이기 이전에 직원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청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 나가면서도 항상 낮은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강조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 업무의 전문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그리고 동료 친화적 소통은 해양경찰이 더 단단하고 강인한 조직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사랑하는 1만 4천여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

중국의 성리학자 주자(朱子)는 “물이 차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水到船浮)”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주자의 말처럼 현재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미래에 더 나은 해양경찰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부터 우리 모두가 해양경찰청장입니다!

모든 업무를 임할 때는 청장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를 선도하는 든든한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해양경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제18대 해양경찰청장 정 봉 훈





# 협화-해경청 지휘부 간담회



▲ 단체기념사진

지난 12월 23일, 우리협회는 해양경찰청에서 신임 해양경찰청장 취임에 맞춰 지휘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협회에서는 김성태 회장을 비롯하여 이강덕 사무총장, 김영무 부회장(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이형철 부회장(한국선급 회장), 김경석 부회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성재모 부회장(Korea P&I 전무이사), 조용화 부회장(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이춘재 부회장(해양경찰성우회장) 등 총 8명의 임원이 참석하였고, 해경에서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서승진 차장 및 국장단 전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제18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정봉훈 청장과의 만남을 통해 민간해양구조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태 회장은 “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불어 오늘과 같이 지휘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민간해양구조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하였다.

정봉훈 청장은 취임에 맞아 해양경찰청의 「新비전 및 핵심정책 추진 체계」의 설명을 통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4가지 친화적인 추진전략과 ‘해양경찰 위성센터’ 등 9가지 세부실천과제를 설명하였다.

이어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며 “그 일환으로 민간해양구조대 보상 및 지원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2021 바다의인상」

지난 12월 23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1 바다의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바다의인상’은 민간구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며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 포상하고 있다. 우리협회에서도 장흥구조대(2018), 포항구조대(2018), 경남서부지부(2020)가 ‘바다의인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바다 의인상’은 개인 5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한국해사재단에서 처음으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포상금 총 6천만원을 수여하였다.

단체 부문을 수상한 93t 통발 어선 태건호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어선 ‘11일진호’가 침몰한 것을 발견하고, 풍랑 경보에도 굴하지 않고 표류하던 2명을 살렸다. 이 과정에서 태건호 선원이 중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태건호 선원을 만나 격려금을 지급하고 협회 표창장 및 평생 회원증을 수여하였다.

제주시어선주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어선 전복 등 다양한 해양사고 현장에 어선 50여척을 지원한 공로로 단체 부문 의인에 선정되었다.

개인 부문에서는 어민 강동석(58)씨가 지난 7월 제주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통발 어선 덕은호에서 불이 난 것을 가장 처음 발견하였다. 그는 4m가 넘는 높이는 파도가 치고 해가 저물어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선원 10명을 모두 구했다.



▲ 정봉훈 청장과 구조분야 ‘바다의인상’을 수상한 강동석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선 선장인 박선용(59)씨는 지난 1월 필리핀 동방 먼바다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인근에 있던 1천138t 원양어선의 무선 조난신호를 받았다. 당시 이 배에는 불이 난 상태였다. 박씨는 상선 항해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 배에 타고 있던 34명 모두 구조하였다. 또 다른 의인 배요한(39)씨는 지난 8월 수상 레저활동을 하던 중 인천시 옹진군 문갑도 인근 해상에서 불에 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물에 빠진 선원 5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바다 의인상의 참여 분야 수상자로는 평소 성실하게 해양구조 업무에 임한 포항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수상구조사 전종두(51)씨와 제주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드론수색대 소속 이복현(54)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드넓은 바다에서 사고대응은 민간의 도움 없이는 안되며 해양경찰은 국민 친화적 구조서비스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하였다.



# 어선 전복사고 민간구조활동 유공자 격려식 개최

지난 10월 19일 독도 북동방 91해리 부근에서 전복된 선박의 승선원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민간구조활동 유공자의 격려식을 11월 4일(목) 오후 3시 울진해양경찰서 후포파출소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우리 협회 이강덕 사무총장, 한명효 울진 구조대장, 울진군청 주하돈 행정복지국장, 울진해양경찰서 박한수 경비구조과장 등이 참석했다.

10월 19일 23시경 독도 북동방 91해리 부근에서 A호(72톤, 승선원 9명)의 전복사고가 발생, 20일 14시 24분경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해지방청으로 사고 통보하였고, 긴급수난구조명령을 받은 B호(93톤, 승선원 9명)가 즉각 조업을 중단하고 사고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선박의 훗줄이 터지면서 B호 갑판장인 우소춘씨(59세)가 안와 및 코 뼈골절 부상을 입고 경북대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마친 후 현재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협회는 악천후 속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우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표창장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평생회원증을 수여했다.

표창장을 받은 우씨는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일 한 것이며 바다에 일하는 동안은 지금처럼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강덕 사무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구조활동에 임한 가치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소춘씨가 승선중인 A호는 지난 12월 23일 개최된 『바다 의인상』 시상에서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상금 1,000만원, 단체깃발)



▲ 단체기념촬영



▲ 이강덕 사무총장이 우소춘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평생회원증과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21년 지부 실무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지난 12월 16일, 우리 협회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교육센터에서 「2021년 지부 실무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본회에서 이강덕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하였고, 지부에서는 13명의 행정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실무자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어려웠던 사항이나 자주 질문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업무 담당자들이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였고, 그밖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교육에는 ▲협회의 역사 ▲해양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 ▲회계 처리 방법 ▲교육 행정관리 ▲협회실적 및 회원관리 ▲구조대 인준방법 ▲공문서 작성방법 ▲복제 규정 강해 등 협회 개요부터 세부적인 행정절차 및 방법까지 포괄적인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부 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강덕 사무총장이 지부 현안별 질의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 단체기념사진

이강덕 사무총장은 “전국지부를 돌며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쉬웠다.”며 “봉사자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재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 이강덕 사무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교육을 듣고 있는 지부 행정 담당자들



## 강원북부지부, 속초시에 6백만원 상당의 무인 방역기 및 약품 기탁



▶ 강원북부지부 김경혁 협회장 (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철수 속초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6백만원 상당의 무인방역기 및 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우리협회 강원북부지부는 속초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6백 만원 상당의 방역기 및 약품을 속초시청에 전달하였다.

금번 후원은 강원북부지부 김경혁 협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직접 사비를 모아 기탁했으며,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 시설 등에 무인 방역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하였다.

김경혁 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그 어느때 보다 힘든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 경남동부특수구조대, 제1·2대 대장 이·취임식

지난 12월 11일, 우리협회 경남동부특수구조대는 창원외 J컨벤션센터에서 제1·2대 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남동부지부 협회장과 특수구조대원들이 참석하였다.



▶ 단체기념촬영

이임 대장인 전승운 대장은 경남동부특수구조대의 초대대장으로 역임하며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소고도 하계인명구조센터 근무에도 수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기 근무를 하며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개인이 보유한 구조선을 특수구조대에 기부하는 등 바다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제2대 대장으로 취임하는 배한철 신임대장은 지난 6년 6개월간 경남동부특수구조대에서 부대장으로 활약하며, 구조, 구난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으며, 직장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조훈련, 안전박람회, 하계안전활동 등 바다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일선에서 행동하는 등 모범을 보여왔다. 또한, 스쿠버 강사, 인명구조 강사·평가관, 동력 수상조정면허 등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배한철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원들과 함께 해양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통영구조대, 『합포 조민규 봉사상』 단체상 수상 이어 『통영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도 개인상 수상 이어져...



▶ 김필수 대장과 대원들이 『합포 조민규 봉사상』 표창 및 수상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협회 통영구조대는 지난 12월 9일 『제5회 합포 조민규 봉사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합포 조민규 봉사상』은 2017년 합포문화동인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40년간 동인회를 이끌며 인문주의자이자 사회교육가, 적십자운동가로 살아온 조민규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경남스틸 최충경 회장이 기금을 출연해 제정된 상이다.

통영구조대는 해양 레저문화 보급, 해양환경정화활동,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 활동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통영시가 주최하고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통영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통영구조대 김종환 대원이 통영시장 표창을, 이상현 대원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등 연일 훈훈한 수상소식을 전해왔다.

##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

지난 12월 3일, 여수 봉산동 이레뷔페에서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의 경영지원본부장과 구조구난본부장, 전남동부지부 조병중 협회장, 전국의 지역대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전국 대장단들의 활동보고, 지역대장들의 건의 사항, 질의 응답시간 등이 마련되었고 앞으로 지역대와 본회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 앞서 지금까지 바다봉사 활동에 공로를 세운 대원들에게 포항해양경찰서장의 감사장(정읍구조대 윤석호 부대장, 전남동부특수구조대 설연중 부대장), 여수해양경찰서장의 표창장(장흥구조대 김성국 대원, 전남동부지부 임성덕 사무팀장, 전남동부특수구조대 마현광 대원) 수여식도 함께 마련하였다.



▲ 단체기념촬영

전국 지역대를 대표하여 제1대 대장을 역임해온 김복수 대장은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대장직에서 물러나며 전남남부특수구조대의 김성필 대장이 지역대장들을 대표하여 제2대 대장에 취임한다.

김복수 대장은 이임사를 통해 “봉사활동의 구조대장직만 28년을 역임해왔다. 매우 훌륭한 후배들이 있어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물러난다.”며 “앞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어 김성필 대장은 “지역대장들의 의견을 모아, 본회 및 지부와 함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며 “지역대 봉사활동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나갈 예정이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경남동부지부, 「제3회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 참가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느끼고 체험하고 안전하자’는 주제로 「제3회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가 개최되었다.



▲ 구명뗏목 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



▲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방법을 교육중인 경남동부지부 대원들

이번 박람회는 경남 안실련에서 주최하였으며 도민들이 각종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박람회는 화재 대피 및 진압 체험, 교통안전 체험, 풍수해, 지진 대피체험,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체험, 완강기 이용체험 등 총 32개의 체험부스, 15개의 전시·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우리협회 경남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선박사고 탈출 및 구명보트 체험관과 해양생존물품 등을 전시하여 국민들의 해양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나섰다. 경남동부지부 김성중 협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대원들을 격려했으며, 경남동부특수구조대원 11명이 적극적으로 해양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며 체험관을 운영하였다.

김성중 협회장은 “비록 어려운 시기에 개최된 행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체험하기 힘든 ‘해양사고 대응법’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교육 기회의 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박람회를 잘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전남동부지부, 정박선박 화재사고 민·관합동 훈련



▲ 선박화재 훈련 모습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11월 25일, 국동항에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와 함께 합동으로 항포구에 계류중인 정박어선 화재사고를 가상의 민·관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해양드론, 선박3척, 소방차량 4대와 함께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내용은 ▲실제 집단 계류지를 훈련장소로 지정하고 ▲선박화재 초기 진화시 선박분리·이동 ▲선박소유자 위험문자 알림 ▲인화성 물질 해상투하 ▲해상추락 선원 구조 등 다양한 상황을 부여하였다.

훈련은 최근 여수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선박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병렬로 정박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며 “선박종사자들은 화재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동절기 선박 안전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전하였다.

이어 “정박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 후 주변에 있는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하고 화재가 확산되기 전 안전에 주의해 선박을 매어둔 줄을 절단해 화재선박과 분리시켜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 『2021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

지난 11월 23일,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는 군산자원봉사센터에서 『2021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와 더불어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군산시 여성자원봉사회 등 총 40여명이 한데 모여 배추 1,300포기를 김장하였으며, 군산 지역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하여 김장김치를 전달하였다.



▲ 김장 후 기념촬영

시민해양봉사대는 해양봉사활동 뿐만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봉사단체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직접 김장을 하고 있는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원들

# 부산지부 · 경남서부지부 거제구조대, 거제 능포항서 합동 ‘수중 드론’ 바다 속 청소

부산지부와 경남서부지부 거제구조대는 지난 11월 13일  
거제 능포항 일원에서 수중드론을 이용한 해양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 수중에서 건져올려진 해양쓰레기



▲ 해양쓰레기를 수거작업 중인 부산지부 · 거제구조대원들

이날 활동에는 부산지부, 경남서부지부 거제구조대, 거제비전연구소 등 40명의 다이버와 20명의 봉사대원이 한 데 모여 총 60여 명의 대원들이 해양환경정화작업에 투입되었다.

특히 이날 해양환경정화활동은 최초 수중드론을 활용하여 바다 속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들을 모니터링 한 후, 해양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지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어구, 폐타이어, 폐가전 등 10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날 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참여한 부산지부 정연송 협회장은 “최근 구조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해양정화활동에 활용함에 따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바다 속 환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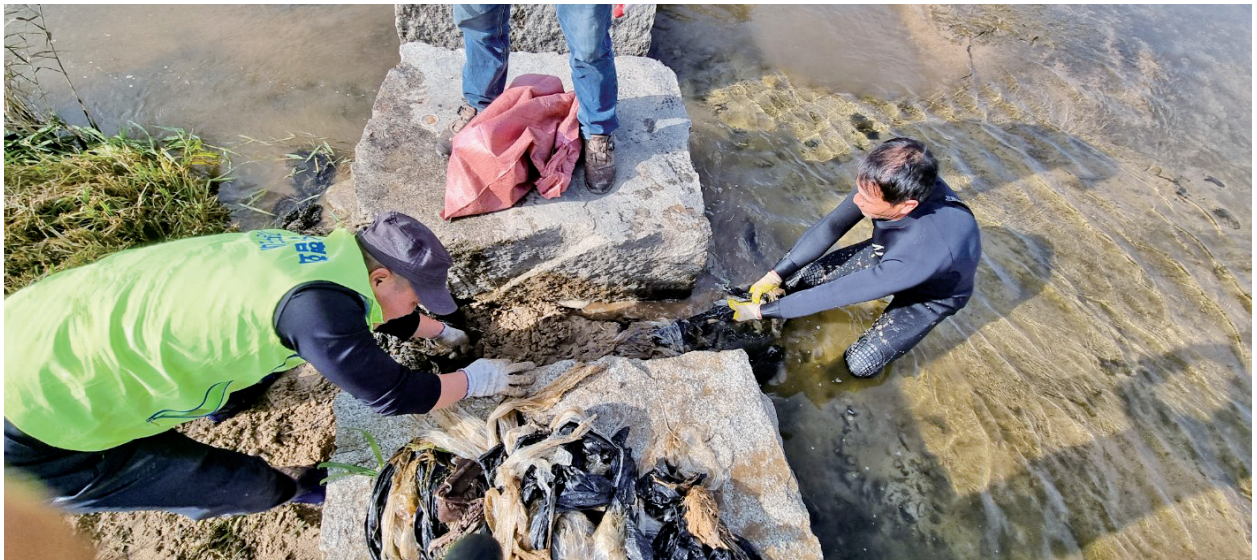


## 거창구조대, 하천 수중정화활동 실시

지난 11월 7일, 경남서부지부 거창구조대는 거창 합수교 인근 하천 및 상수도 보호구역(취수장) 일대에서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거창구조대 15명의 대원들이 모여 하천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대원들이 직접 다이버 수트를 착용하고 하천 깊숙이 침적해 있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거창구조대가 수거한 쓰레기는 약 1톤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륙에 위치한 거창구조대는 지역 생태계 환경 보호를 위해 하천과 강가, 호수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수면의 환경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하천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 하고 있는 거창구조대원들

## 경기충남북부지부, 화재 관련 사고로 오염된 바다 정화작업 실시



▲ 화재부유물을 건져올리고 있는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

지난 11월 2일, 경기도 화성의 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발생한지 9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화재로 연 면적 3천 800㎡의 철골조 건물 대부분과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됐으며, 많은 양의 스티로폼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화재 발생 후 공장에서 발생한 부유물들이 전곡항과 궁평항까지 퍼지면서 바다에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켰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경기충남북부지부는 배금란 협회장과 12명의 대원들이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수습에 나섰다.

대원들은 부유물을 수거하기 위해 개인 선박 2척과 뜰채를 사용하였으며, 퍼지는 속도가 빨라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물로 인해 자칫하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장을 경기충남북부지부의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 부산지부,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훈련 참가



▲ 잠수 훈련에 투입되는 부산지부 소속대원들



▲ 훈련현장

지난 11월 3일, 우리협회 부산지부는 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부산해양경찰과 부산시에서 주최한 해양사고대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부산지부,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항VTS, 해군, 항만소방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 총 10개의 유관기관에서 250여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훈련을 벌였다.

훈련은 익수자 발생, 선박화재, 선박 파공 봉쇄, 오일 유출 대응 및 사고선 예인 등 동시다발로 발생한 사고를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부산지부에서는 해경전우회, 동부산구조대, UDT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이 참여해 잠수장비, 선박, 드론 등 대원들이 보유한 장비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해양사고 훈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난안전통신망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복합적인 사고 발생시 각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박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복합상황 속 기관별 통신망 운용이 아닌, 통합 통신망 운용으로 실시간 정보공유를 하였다.”며 “향후 실제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재난컨트롤타워를 단일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 통영구조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봉사 활동

지난 11월 27일, 통영구조대는 관내 독거노인, 조손가장 등 난방 취약계층 4세대에 연탄 400장 및 난방연료 60만원 상당을 후원하였다.

이날 난방 연료는 통영구조대원들과 정광호 통영시의원이 직접 후원 대상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연탄을 나르고, 연료 주유권을 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등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연탄봉사활동 중인 통영구조대원들

김필수 통영구조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연탄을 지원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보람을 느껴 매년 겨울마다 작은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 경북특수구조대, 제천 수상의용소방대와 업무협약 체결



▲ (왼쪽부터)경북특수구조대 황승욱 대장, 충북 제천 119수상구조 전문의용소방대 강신용 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협회 경북특수구조대는 구조대 교육훈련장에서 충북제천 119수상구조 전문의용소방대와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은 포항과 제천에서 발생하는 수상사고에 대비한 구조협력 및 정기 훈련과 관련하여 교류를 강화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원들의 구조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전국 구조 · 구난소식

## | 경남서부지부, 통영 동호항 실종의심자 수색작업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이틀간, 통영 동호항에서 실종의심자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 실종의심자 수색작업에 들어간 경남서부지부 대원들

이번 사고는 11일, 통영 동호항 지역주민 A씨(50대)가 3일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CCTV 확인 결과, 택시에서 동호항 해안가에 내린 것이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통영해경에서는 실족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색에 나섰다.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도 사고현장에 투입되었다. 경남서부지부에서는 이틀간 18명의 대원들이 동원되었고, 잠수장비 및 드론을 활용하여 수색활동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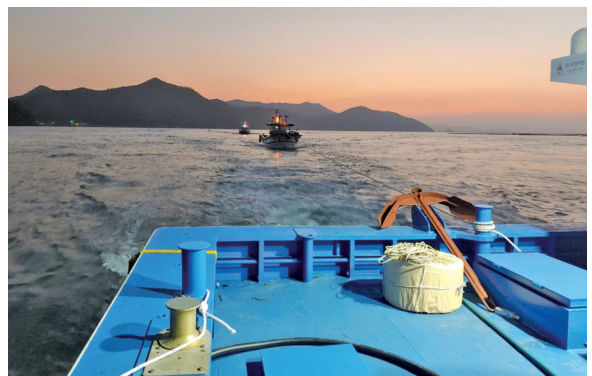
하지만 통영해경과 경남서부지부의 수색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종의심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 | 강진구조대, 6.67톤급 침수 선박 예인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경 전남 완도군 신지도 해상에서 조업 후 이동 중이던 A호(6.67톤)가 기관실이 침수돼 침몰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완도해경서에 접수되었다.

사고선박 A호는 15일 오전 5시 20분경, 전남 강진군 마량항을 출항해 오전 6시에 생일도 인근해상에 도착, 조업을 마치고 이동 중 수중암초에 부딪혀 완도어선안전조업국 경유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의 연락을 받은 우리협회 강진구조대는 손성은 대장을 비롯하여 7명의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16톤 크레인 어선을 구조대에서 직접 동원하여 사고 선박을 안전하게 강진군 마량항으로 예인하였다.



▲ 드론수색중인 대원들

# Hot 人



▲ (왼쪽에서 두 번째) 김미경 봉사대장이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을 코로나 위기가정에 기부하고 있다.

## '봉사'의 의미를 정의하다.

###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김미경 대장의 봉사이야기

| 인터뷰 \_ 보령봉사대장 김미경 |

최근 취업스펙,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봉사'를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론 긍정적인 선순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사진만 남겨놓는 등 활동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김미경 대장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사의 발자취를 남겨왔다. 어떤 일의 수단이나 목적이 아닌 오로지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봉사를 시작한 김미경 대장은 '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 의미를 정의내리고 있다.



## 특별한 바다 봉사

김미경 봉사대장은 충청남부지부 서완봉 협회장이 취임한 때인 지난 2018년에 보령봉사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 대장은 입회 전부터 이미 보령지역에서 여성어업인회 보령지부에 소속되어 20년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직접 잠수장비를 들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11개의 도서지역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바다 봉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서지역의 봉사활동은 육지에서의 활동과는 조금 다르다. 2시간 이상 배를 타는건 기본이고 한번 들어가면 1박 2일은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그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주저없이 배를 타고 도서지역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김미경 대장과 대원들은 집수리가 힘드신 이웃들을 위해서 도배, 장판 보수 작업, 그리고 생필품 지원, 반찬 및 김장 지원, 미용봉사 등 생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한때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바다와 관련된 봉사 인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된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김미경 대장과 동료들 역시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사고 당시 새벽부터 봉사 오는 사람들이 버스로 줄을 이었고, 김미경 대장은 봉사자들을 위한 라면과 커피 등을 직접 준비하며 하루 8시간 총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 어민들의 가족을 위해서  
집수리 봉사와 미용봉사 중인  
보령봉사대



## 봉사의 덕(德)질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한다. 덕질은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배우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봉사의 덕(德)질을 제대로 하는 김미경 대장이 있다. 김 대장의 덕(德)은 점점 쌓여가는 공덕(功德)의 덕(德)질이다.

▶ 연탄봉사활동 중인  
보령봉사대



김미경 대장을 봉사의 덕(德)질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김 대장이 활동한 세월만큼 봉사활동의 가짓수는 점차 늘어갔으며, 단발적인 행사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의 맥을 이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처음 봉사를 시작한 이유는 신체가 불편한 아버지의 요양을 도왔던 김미경 대장에게 운영했던 가게 단골손님으로부터 필요한 요양 물품을 전달받게 되면서 이웃의 온정이 무엇인지 몸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김 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kg 쌀 50포대를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후원하면서 김 대장의 봉사 덕(德)질은 시작되었다.

그 후로 보육원 목욕봉사부터 연탄봉사, 김장봉사 등 가리지 않고 활동을 넓혀나갔다. 또한, 개인적으로 15년간 학비가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 좌) 김장봉사  
우) 바자회 봉사



## 함께라서 가능했던 봉사

김미경 대장의 활약상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기관장의 포상 추천 대상자에 이름이 몇 번 거론되었지만 매번 상을 거절해왔다. ‘단체의 이름이 아닌, 개인으로 받는 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뜻이다.

김 대장의 봉사활동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 한두 해 인연을 맺은 사이가 아니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초창기 때부터 대다수 10년 이상을 함께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가족처럼 고충을 함께 고민했으며 동료 관계를 넘어 가족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김미경 대장은 동료들 뿐만 아니라, 많은 후원인들과도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오며 그녀의 헌

▶ (왼쪽에서 두번째 김미경 대장) 해양경찰청장의 감사장을 받은 김미경 대장은 이날 역시도 개인이 아닌 보령봉사대의 이름으로 상을 수여 받았다.



▶ 후원받은 밭에서 기른 배추와 고구마



신적인 활동에 진심어린 응원과 관심을 받고 있다.

“뭐 필요하지 않아?”

이 질문은 김미경 대장이 후원자들에게 빈번히 듣는 질문이라고 한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직접 밭로 뛰며 후원자들을 찾아 나섰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후원자들 역시 김미경 대장과 한마음이 되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묻고 후원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한다. 2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김 대장에게 가장 보람된 순간이기도 하다.

보령봉사대에서 매년 진행하는 겨울 김장 봉사 역시 초창기에는 배추를 직접 구매하였지만 현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후원받아 그곳에서 배추 뿐만 아니라 반찬거리를 할 수 있는 각종 야채 등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미경 대장의 봉사활동은 365일 중 쉬는 기간이 없다. 협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개인이 하고 있는 일들도 워낙 많아 할당된 분량이 초과할 정도이다.

2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어준 김미경 대장의 소망은 매우 소박하다. 함께 하는 동료들과 지금까지 끈끈함을 유지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봉사의 덕(德)질을 쉼 없이 하고 있을 김미경 대장을 위해 결코 쉽지않은 그 길을 응원하며 추운 겨울 김 대장의 따뜻한 온정(溫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본다.

# 안전을 부탁 海

## '훈련이 곧 자신감이다'

### 전남동부특수구조대의 구조훈련 이야기

| 인터뷰 \_ 전남동부지부 임성덕 팀장 |



▲ 12주기 합동훈련을 위해 여수 오동도 일대에 함께 모인 전남동부특수구조대와 여수해양경찰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육지보다 기후 등 주변 환경 영향이 매우 크다. 때로는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 투입되었다가 구조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생사를 다투는 긴박한 사고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자들은 머뭇거릴 틈이 없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해양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훈련이다. 일회성 훈련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역량을 꾸준히 늘리는 것과 더불어 실제상황을 가장한 반복훈련 밖에 없다.

사고현장을 많이 경험해본 전남동부지부는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며 여수해양경찰과 함께 훈련횟수를 늘리고, 개인 역량강화에 주력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금은 특별한 그들의 훈련이야기를 들여다보며, 해양구조 봉사단체로서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느껴보고자 한다.

#### 12주기간 훈련

'12주기간 훈련'은 12일마다 한 번은 반드시 모여 전남동부특수구조대와 여수해경이 훈련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매월 작게는 6회에서 많게는 12회 가량 모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한 달에 적지 않은 시간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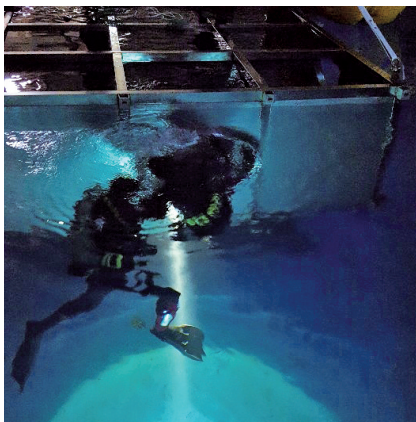


▲ 좌) 전남동부특수구조대 김경식 교육팀장이 다이빙 장비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 (맨 오른쪽) 우지웅 전남동부특수구조대장과 (수중) 홍태경 대원 그리고 여수해양경찰과 2인 1조로 실종자 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2주기간 훈련’에는 로프 매듭법 이론교육, 로프 구조훈련, 수중탐색법 및 비상절차 훈련, 표류자 및 고립자 구조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와 토론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매회 성장하고 있다.

전남동부지부에서는 기동력이 높고 다년간의 잠수경력을 보유한 전남동부특수구조대 20명이 이 훈련 참여하고 여수해경은 구조기술과 개인 역량이 뛰어난 해양경찰구조대가 참여한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구조기술 등을 서로 교육하며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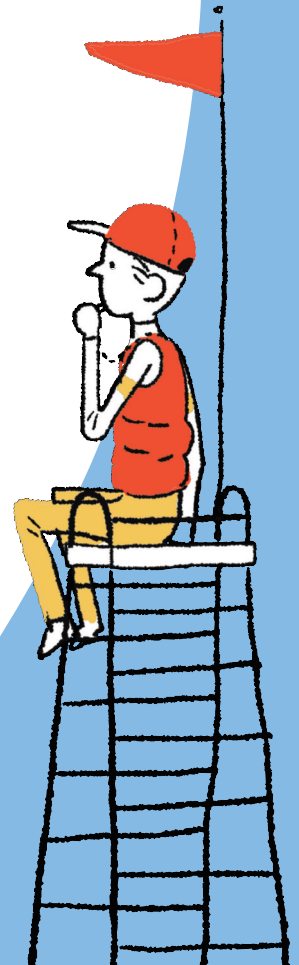
특히, 전남동부특수구조대 김경식 교육팀장은 잠수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현재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수 해양경찰교육원뿐만 아니라 여수평생교육원 등 스킨스쿠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12주기간 훈련’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구조기술을 해양경찰과 공유하며 경력으로 다져진 내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좌)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침수선 수색 훈련 / 우) 침수선에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

### 훈련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양 기관에서 누가 먼저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12주기간 훈련’의 가장 큰 강점이다.



# 안전을 부탁 海

지난 8월 20일, 여수시 경호동의 한 골프장 직원 2명이 여수 국동 대경도 선착장에서 차량과 함께 해상추락사고로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여수해양경찰의 지원요청으로 다음 날 21일, 전남동부특수구조대원 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중수색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대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여 내부에 있는 실종자 2명을 발견하였고 차량 인양까지 마무리하였다. 상황종료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일어나면서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다. 또한, 악천후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 대로 대처할 수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훈련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을 종종 경험한다.



▲ 여수시 경호동 차량 해상추락사고 수색현장에서 전남동부특수구조대원들과 여수해경

## 바다의 어벤저스

전남동부특수구조대는 스쿠버, 인명구조강사, 재난안전지도사, 잠수기능사, 산업잠수사 등 수색구조를 위한 필수 자격증을 현재 모두 보유하고 있다. 훈련뿐만 아니라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 자격취득에 도전하기도 하고 보유자격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

각자의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동부특수구조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사고에 24시간 출동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때로는 출동 중에 발생하는 비용과 선박임대, 출동 현장에서 사용중 발생한 장비 손상에 대해서 대원들이 사비를 모아 해결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활한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자력으로 모든 활동을 지탱해가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언제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구조현장에서 느꼈던 보람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어 지금도 사고현장에 망설임 없이 출동하는 전남동부특수구조대는 상상 속의 어벤저스가 아닌 현실의 히어로로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로 달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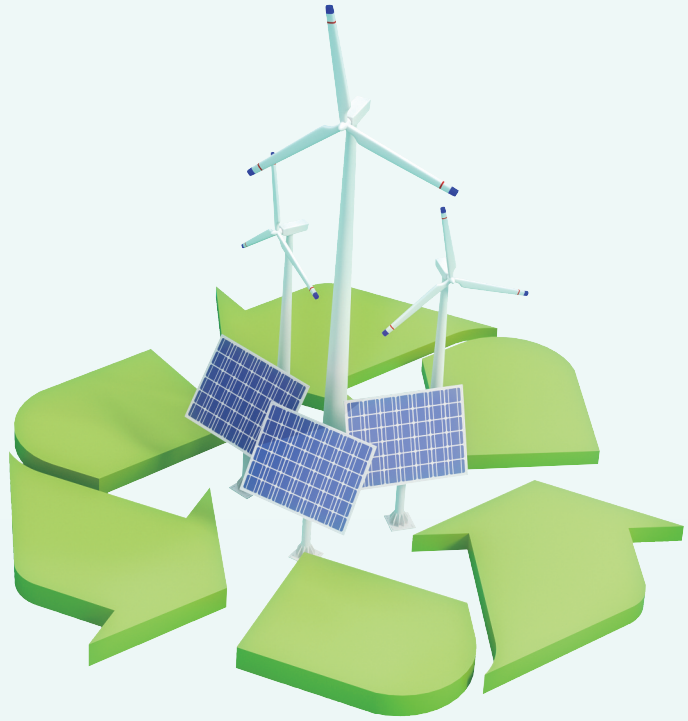
이토록 소중한 바다의 어벤저스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바다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듯, 우리 역시도 바다영웅들에게 도움되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이다.





# 환경을 부탁 海

## 깨끗한 바다는 그린뉴딜의 시작



###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말한다.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 환경기구에서는 그린뉴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넷-제로(탄소 순배출이 0인상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역시도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평균 2% 증가함에 따라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그린뉴딜의 정책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 배출량을 2050년 '마이너스'로 만든다고 선언하였다.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소화 하고, 파력, 조력 등 바다에너지와 갯벌 등의 블루카본을 활용해 탄소 중립을 넘어 오히려 연간 324만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네거티브'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해운분야는 디젤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등 선박 기술을 고도화하여 수소 및 암모니아 선박 기술을 상용화한다. 노후 어선은 신조선으로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31만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 가능성을 검증하고 조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갯벌, 염생식물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50년까지 136만 2000톤의 탄소를 흡수한다. \*블루카본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기



▲ 사진 = 해양수산부



위해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km<sup>2</sup>와 갯벌식생 660km<sup>2</sup>를 복원하는 한편 2030년까지 540km<sup>2</sup>의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 후보지를 탐색해 제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며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본다.

※ 블루카본 : 어패류, 염생식물과 같은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 그린뉴딜의 시작, 우리의 역할은?

우리협회는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바다는 그린뉴딜의 시작,이라는 국가환경 정책 방향에 맞는 주제로 해양오염이 심각한 국가 비지정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유입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특히 바다와 관련된 어업인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직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이슈가 되는 재순환 자원 전환인 '업사이클링'에 대한 의미와 다양한 사례들을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총 5개의 지부(부산지부, 경남서부지부, 전남서부지부, 충청남부지부, 경기충남북부지부)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가량 각 지역의 항포구를 중심으로 30회를 거쳐 진행하였다. 무더운 여름부터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수습하였던 모든 계획을 이행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니터링하였다.

특히, 협회의 특성상 해안가 주변의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잠수대원들이 직접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오랜 기간동안 세월에 가려진 쓰레기들을 대거 수거하면서 깨끗한 바다 살리기에 나섰다.

비록 한 번에 탄소 제로를 실천하고 바다 환경을 모두 정화할 순 없지만, 봉사자들이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무한 시너지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선순환 고리로 이어져 '그린뉴딜'이라는 우리가 추구한 목표로 빠르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현황**  
해양쓰레기 수거량 추이 (단위: 톤) 2019년 1,421.77톤, 2020년 1,521.21톤, 2021년 1,578.64톤, 2022년 1,528.50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이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과정**  
1. 모니터링 지역 선정 2.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결정 3. 모니터링 실시 4. 모니터링 결과 분석 5. 모니터링 결과 보고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목적**  
1.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파악 2.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파악 3. 해양쓰레기 수거 방법 개발 4.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개발 5.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개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해양쓰레기 수거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의 의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방법**  
해양쓰레기 수거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업사이클링과 캠페인이 설명되어 있는 리플렛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카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카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카드

「깨끗한 바다는 그린뉴딜의 시작」 지부 환경정화활동

경남  
서부지부



경기충남  
북부지부



부산지부



전남  
서부지부



충청  
남부지부  
(홍원구난대)



● 국내 뉴스

# 해양경찰청,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도입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대면 신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승선원 변동신고를 위하여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는 연간 약 15만 건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되어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출처: 해양경찰청]

● 국내 뉴스

#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중점점검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경찰청]

● 국내 뉴스

## 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65억 원 배정, 12월 13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멸치 어황 부진 및 굴 집단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및 굴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안 일대 멸치 어황 부진으로 멸치 생산량이 작년 동월(10월) 대비 60.2%(연간 누계(~21.10) -25.5%) 감소하였으며, 멸치 산지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32%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 경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원인불명의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멸치권현망의 경우 남해안(경남, 전남, 부산) 지자체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며, 굴 양식장의 경우 경남도 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어업경영비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멸치권현망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 및 굴 양식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1.12월 기준 0.6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2월 1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매월 변경하여 적용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폐어구, 부표 해양투기 막는 법제도 기반 마련됐다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선진국형 수산자원관리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수산자원은 관리하고,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에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치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정조치 요구, 선박소유자의 요구사항 이행 등 주체별 의무가 명확해졌다.

그 외에도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모양, 색깔 등 물리적 신호 중심으로 운용되던 항로표지를 디지털 방식까지 포함해 고도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운산업 종사자의 선원 노동권,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원법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http://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 2022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 2022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2022년 『해양안전지도사』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 2022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해양안전·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 수행

### | 2022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대 상 : 2급 - 만 16세 이상, 사전평가(자유형/평영 각50m, 잠영10m) 합격자  
1급 - 2급 자격증 보유자 중 동 교육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2급 20만원 / 1급 2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전날 까지 100% 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생존수영지도(12시간)
  - 응급처치지도(4시간)
  - 생존수영이해(8시간)
  - 교수법(8시간)

- 자격명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생존수영지도사(2020-005567)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소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일조선



(주)코르웰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동신해운(주)



대형선망수협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Korea Maritime Pilots' Association



선진종합  
SUNJINTUG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KOREA MARINE OFFICERS' ASSOCIATION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MARINE · HOUSE · INDUSTRY



KOREA P&I CLUB  
한국선주상호보험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INE · HOUSE · INDUSTRY

## SCUBA 강사 양성과정

### 예비 강사 모집

- ▶ 기간 및 인원 : 연중 모집 , 1대1 ~ 5명 개인, 그룹 강습 가능
- ▶ 장소 및 방법 : 부산지역, 리드쉽(AI, ITC, ICC) STW, ITW 전 과정
- ▶ 교육내용 : 강의실, 수영장, 해양실습 등 교수법 및 다이빙 스킬교육
- ▶ 상담전화 : 010-6439-1119 / [rcbusan1119@gmail.com](mailto:rcbusan1119@gmail.com)

**협회 회원 특별 할인 적용**

우)49126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지해변길 96 마린하우스